

[아프리카 · 중동 비즈니스 정보]

## 사우디아라비아 경제특구(ESZ) 동향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의존형 경제를 지양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추구하는 국가 장기 전략 '비전 2030'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국내 경제 특구와 공업 단지에 우수 비즈니스 촉진 조치를 도입해 성장을 가속화하는 '지역형 경제 특구(Enabler Showcase Zone, ESZ)'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 경제 특구 개발을 담당하는 사우디 경제 도시개발청

사우디 경제 도시개발청(Economic Cities Authority, ECA)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도시 관리 및 개발을 목적으로 2010년 2월 25일 공포된 국왕령(No.A/19)에 의해 설립되었다. ECA는 주로 사우디의 경제 도시 전략 수립 및 운영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ECA는 경제 도시 계획과 구성에 있어서, 도시의 번영은 물론, 예산 낭비를 지양하고 높은 수준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 관료적인 간섭이 경제 도시의 투자 유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역시 ECA의 책임이다. 이렇게 ECA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도시의 전반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또한 ECA는 전세계 경제 특구, 도시 관리의 모범 사례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도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 사례 파악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ECA는 두바이 공항자유구역청(Dubai Airport Free Zone Authority, DAFZA) 등 다른 국가의 경제 특구 관리 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한편, ECA는 경제 도시 개발자와 잠재적인 투자자를 모집하는 유일한 정부 대표 기관으로도 자리 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ECA는 경제 특구, 도시 관리기관으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창구 관리 기관으로서의 전권을 부여받지는 못하였다. 경제 도시 개발자 및 투자자는 사우디 내 여러 조직과 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세스의 대부분이 ECA의 관할에 없다. 현재의 기능에서 ECA는 다양한 인증 및 승인에 대해

여러 외부 기관에 의존해야 하고, 경제 도시 관리의 영향력과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 이것은 경제 특구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제 도시의 민간 개발자는 필요한 승인을 얻기 위해 사우디 정부의 여러 부서와 조정을 실시해야 하며, 이는 일정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수의 개발자와 투자자는 ECA에 대한 권한 부여를 희망 조건으로 꼽고 있다.

## 사우디아라비아 유망 경제 도시 및 공단

시장조사업체인 프로스트 & 설리반은 경제 특구 개발 단계, 중점 산업 인프라의 가용성, 노동력의 이용 가능성, 향후 성장 가능성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사우디 유망 경제 도시, 공단으로써 다음과 같은 4 개 도시 및 공단을 선정했다.

### ① 압둘라 국왕 경제 도시(King Abdullah Economic City , KAEC)

압둘라 국왕 경제 도시(KAEC)는 석유 경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개발된 국가를 목표로 하기 위한 비전의 일환으로 고안되었다. 2006년에 설립된 산업, 상업, 주거 영역을 포함한 종합 도시로 개발, 홍해를 따라 위치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국내외를 연결하는 여러 물류 옵션을 갖추고 있다. 2030년까지 1,000억 달러를 들여 현대적인 항만, 제조 및 금융 서비스도 지원하는 산업 벨리, 중앙 상업 지구로 정비될 예정이다.

### ② 지잔 경제 도시(Jazan City for Primary and Downstream Industries Establishment , JCPDI)

지잔(Jizan)은 사우디 남서부로 에너지 및 노동력 기반산업 발전 중심 도시로써 건설되었다. 도시규모는 117km<sup>2</sup> 정도로 투자액은 약 76억 달러에 이른다. 수용인구는 25만 명 규모이며, 도시규모의 2/3를 산업단지로 구성된다.

### ③ 담맘 제 3 공단

사우디공업단지공사(Saudi Industrial Property Authority, MODON)은 담맘 제 3 공업 단지의 투자 유치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사우디 아람코가 2016년 이쿠티바(In - Kingdom Total Value Add Program , IKTVA)라고 명명된

사우디 국내에서의 현지 조달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중소기업 부문의 담맘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사우디 아람코는 매년 담맘에서 이쿠티바 관련 전시회 및 포럼을 개최하고, 지역의 잠재적인 기회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이 홍보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분야는 도관 기계·장비, 전자 장비, 드릴링 장비, 단조 주조 장비, 철강, 화학 제품, 압축기, 펌프 모터 등이다.

#### ④ 네옴(NEOM)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초대형 주거·사업용 신도시 '네옴 (NEOM)'을 건설한다고 2017년 10월 24일 밝혔으며, 5천억 달러(약 564조원)가 투자될 예정으로, 서울의 44배 넓이(2만 6천500km<sup>2</sup>)로 조성된다.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는 네옴이 에너지, 물, 생명공학, 식품, 엔터테인먼트 중심 도시가 될 것이며, 두바이와 같이 사막에 현대적인 도시를 만들고 다양한 기업을 유치해 '경제 허브'로 키워내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자료정리: EMERiCs, 자료감수: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출처

일본 무역진흥기구, 사우디의 경제 개혁의 쇼케이스인 경제 특구(ESZ)에 관한 조사, 2018. 04. 24

<https://www.jetro.go.jp/world/reports/2018/01/c0d66fb503f41e35.html>